

# 원숭이두창 감시 강화...“백신 접종 계획 없어”

### 사람 두창 백신 3502만명분 국내 비축 원숭이두창 발생국가 여행객 발열 체크

방역당국이 24일 원숭이두창 유입에 대비한 대규모 두창 백신 접종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두창 백신은 생물 테러나 고도의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해 비축한 것”이라며 “아주 큰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원숭이두창이 있더라도 일반 인구에 대한 사용 계획은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생물테러 등에 대비한 사람두창 백신 3502만명분이 비축돼 있는데, 이는 원숭이두창에도 85%

의 효과를 보인다. 이 단장은 “사람 두창과 원숭이두창은 같은 과, 같은 속에 속해 백신이 교차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백신에 대한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평가는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입국 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이 요구된다. 발생 국가는 서아프리카, 중앙아프

리카,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호주, 덴마크, 오스트리아다.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통상 6~13일, 최장 21일이다. 귀국 후 3주 이내 38도 이상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얼굴을 시작으로 손, 발에 퍼지는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우선 연락해야 한다.

원숭이 두창은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으로 일반적으로 사람 간 감염이 드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달 들어 유럽,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 18개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및 의심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뉴시스

# 허백련 동상 앞에 친일파 단죄문 ‘눈살’ 동상 옆 서정주 시비 앞에 단죄문, 시각적으로 혼선



의재 허백련 동상 앞에 친일파 단죄문. 동상 옆 서정주 시비 앞에 단죄문, 시각적으로 혼선

한국화 대가인 의재(毅齋) 허백련(1891~1976) 선생의 동상 앞에 친일파 단죄문이 설치돼 시각적으로 혼선을 빚는 등 논란이 일자 광주시에 단죄문 이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의재 선생의 동상은 당초 동구 학동 의재 창작스튜디오(옛 연진미술관)에 설치돼 있던 것을 지난 2010년 시의 요청으로 동구 학동삼거리로 옮겨졌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상징물로 삼자는 취지로, 의재 선생을 기리는 도로인 ‘의재로’(학동삼거리~중심사, 3.7km) 초입으로 옮기면 어떨겠느냐는 시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설이 이뤄졌다. 인근엔 아담한 소공원도 조성됐다.

동상 앞에는 의재 선생의 업적을 기린 시비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설 11년 만인 지난해 동상 앞에 친일파 단죄문이 설치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동상에 남긴 비문 ‘의재도인 동상명’의 작성자가 다른 아닌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 미당 서정주고, 청산해야 할 친일 잔재로 분류되면서 시비 앞에 단죄문이 설치됐는데, 의재 선생의 동상과 시각적으로 겹치면서 “누가 친일파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다.

인근 주민들은 “단죄문이 도시철도 출구 바로 앞에 세워져 마치 의재 선생의 동상을 ‘서정주 동상’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유족들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오래된 소지가 다분하다”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동상 이설과 단죄문 설치를 주도한 광주시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내부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는 “가장 큰 문제인 단죄문의 위치를 옮기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자

# 아파트 공사장서 타설 장비 맞은 노동자 1명 사망

### 광주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경찰 조사 중

광주의 대단지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작업대가 휘어 지상으로 낙하, 이에 맞은 노동자 1명이 숨졌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2분 광주 북구 인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30~40m 길이)가 휘면서 4m 아래 지상층 타설 작업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작업대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친 노동자 A(34)씨가 급히 병

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주차장 상층부 구조물(지상층)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타설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펌프카는 타설 공정 중 레미콘 차량에서 배합한 콘크리트 등을 타설 작업 현장으로 쏘아 보내는 데 쓰이는 장비다. 펌프카 붐대는 작업 중 모 두 펼쳐면 수평으로 50m까지 늘어 나나, 사고 당시엔 암송관 인근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광주고용노동청도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흔하지 않은 사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고용노동청 등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전했다. /천기만 기자

# 순천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오지마을 안전지킴이 순례 지속



순천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송광면 신척마을과 왕대마을의 소의계층을 방문해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

순천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송광면 신척마을과 왕대마을의 소의계층을 방문해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

47세대가 거주하는 산척마을(순천소방서 40km)과 22세대 거주 왕대마을(순천소방서 42km, 송광119지역대 12km)은 화재 및 재난상황 발생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이 어려워 최초 목격자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마을이다.

순찰대는 지난 11일부터 외서면 송곡마을과 쌍울마을을 시작으로 송광면 산척마을과 왕대마을로 지속 방문하여 36가구 36명에게 ▲화기사용(아궁이) 점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소화기 보급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안전바 설치 ▲생활안전 위험 요소 제거 ▲혈압, 당뇨 등 기본건강 체크 등 한 가구, 한 가구 직접 방문해 생활속 불편사항을 경청 해결하고 기초 소방시설 사용 교육을 하고 있다.

#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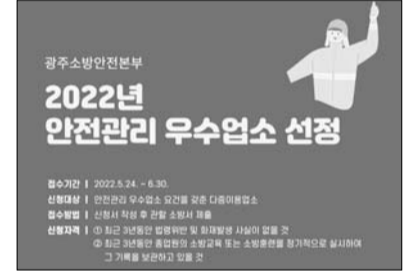
### 다음달까지...2년간 소방특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6월30일까지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2022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 내 다중이용업소 중 우수업소 요건을 갖춘 영업장으로, 관할 소방서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수업소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종업원의 소방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2020년에 선정된 13개 업소에 대해서도 인정요



건 재확인을 통해 총측 시 인증을 갱신할 예정이다.

올해 우수업소는 신청 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공정한 심의 과정을 거쳐 11월9일 선정·공표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출입구에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함께 표창 수여,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범 기자

# 서구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중대재해예방 만전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각 1명...내달 7~9일 접수

서구가 광주 최초로 신설한 중대재해예방팀(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내)의 전문성 확보와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예방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구청 종사자와 구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 등에서의 중대재

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지난 3월 신설됐다. 이 팀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예방 업무 절차 마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상황 관리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자를 채용하

여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임용시험 시행을 공고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각 1명씩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s://www.seogu.gwangju.kr)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달호 기자

#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연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